자기소개서

|  |
| --- |
| 1. 자기소개  해군장교셨던 아버지를 따라 온 가족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때 제 나이 8세. 아버지는 아들의 좁은 어깨를 토닥이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친 파도가 너를 강한사람으로 만든단다” 그 후 한국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들에게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결국 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가 그들 앞에서 당당히 연설까지 했고 그 일련의 과정들은 저에게 있어 큰 자산으로 남아있습니다.  2. 본인성격(300자)  헌병대 중대장으로서 100명이 넘는 대원들과 함께 생활했었습니다. 밤이 되면 대원들은 저에게 인생상담을 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근심 어린 얼굴로 들어오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저의 향기를 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작지만 가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을 모시던 보좌관 시절 저는 항상 그래왔듯이 항상 YES만을 했습니다. 어느 날 사령관님이 진정으로 조직을 위한다면 당당히 맞서서 바꾸고 아닌 것은 “No"라고 외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조직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틀린 것은 ”No"라고 당당히 외칠 줄 하는 소신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3. 지원동기  항해사 시절 바다 위의 밤하늘은 저를 위로하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가끔은 해군장교로 남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바다라는 곳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군함을 정비하는 정비창 창장님의 보좌관을 하던 시절 각 건 선거에서 행해지는 정비과정, 기술연구소의 기술 발전과정들을 보면서 바다는 아름다움을 넘어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바다라는 곳은 가능성이 큰 경제시장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4.  해군장교로서 1500톤급 항해사, 정비창장 보좌관, 사령부 훈련과장을 했습니다. 항해사 시절에는 배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정비창장을 따라 다니며 어깨너머 배 수리과정과기술 발전 등을 보았으며, 훈련과장으  로서는 함정요원들을 훈련 시키고, 함 운행 전반을 관리하였습니다. 이렇듯 운항관리에 업무 시에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이과출신 보다는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는 입사 후에 선배로부터 혹은 전문서적을 가지고 많은 공부를 해서 보완하  도록하겠습니다.  5.  대학시절부터 영어실력과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영어 공부는 타임지를 번역하고 토론하는 동아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했습니다. 영어회화 공부를 위해서는 해군장교 임관 후 하루도 빠짐없이 외국인과 매일 20분씩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영어공부를 해왔습니다. 또한 미국영화와 미국신문을 매일 보면서 공부해왔습니다.  리더가 되는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자생적인 리더를 목표로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TIME동아리 회장, 총학생회(비운동권) 문화 및 조직국장과 선거본부위원장, 전경련 심포지움 회장, 헌병대 중대장 등을 통해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왔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의 기초인 영어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리더십을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선배님들을 지켜보고 필요 덕목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겠습니다.  6.  함정 근무 시절 저의 상관이었던 대위(작전관)은 저와 스타일이 많이 달랐었습니다. 저는 부하가 실수를 하더라도 화를 내기 보다는 설득을 위주로 하였고, 대위는 욕을 하거나 화를 잘 내는 스타일 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크리스마스를 맞아 함정 내부를 환경미화 하라는 함장님의 미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대위는 화를 내며 부하들을 다루고 일을 진행 하였습니다. 저는 휴식시간에 공손히 대위님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제 의견을 받아 주셨고, 무사히 즐겁게 일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연락하는 그 대위는 저처럼 당신에게 솔직히 조언을 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서 고맙다는 말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